

제주 신교통수단 도입 '동상이몽'

교통정비 중기계획·관광진흥계획 등에 담겨
교통수단·관광상품 시각차... 도입 목적 희석
"정부 설득위해선 무엇보다 목적 정립이 먼저"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지만, 교통수단 또는 관광상품 등 부서마다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 1일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2019-2023)'에 제주형신교통 종합분석 결과가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인구와 관광객·자동차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도심지 평균통행속도가 2017년 기준 시간당 26.6km에서 2025년 11.6km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수단은 ▷바이모달트램 ▷지상트램 ▷모노레일·노면전차 등이 검토됐으며, 노선은 역세권 5개 축을 중심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동서1축(노형-오일장) ▷동서2축(연동-제주도청) ▷동서3축(제주공항-건입동) ▷동서4축(제주공항-제주항) ▷동서5축(제주공항-제주항) 등이다.

최종적인 수요 노선은 동서2축과

동서5축 등 2곳으로 압축됐다.

또한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도 관광진흥계획(2019-2023년)에서도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이뤄졌다.

1안에는 거문오름과 영어교육도시 등을 거치는 간선을 포함한 일주도로를 따라 시속 60km 미만으로 이동하는 저속형 트램이 제시됐다. 교통수단보다는 관광트램에 가까워 보인다.

또 2안에는 제2공항을 중심으로 제주항이나 서귀포 환승센터 사이를

운영하는 시속 100km 미만의 고속트램이 검토됐다.

제2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계획은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에도 담겨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과제에는 정시성 확보와 운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간략히 제시됐다.

문제는 관련 계획들이 남발되면서 도입 목적을 희석시키는 데 있다.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면 km당 수백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설득이 필수다.

목적 정립과 행정력 결집을 위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에 수정될 수 있다"며 "일정 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분담율이 20% 이상될 경우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에 들어간다. 지금으론 모두 검토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1년 노형오거리-삼무공원-제주공항-시외버스터미널-보성시장-제주항-국립제주박물관 등 12.5km 구간에 트램 등을 도입하는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투명카약 즐기는 관광객들 3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한담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투명카약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본격 추진

19개 마을 842곳 대상
도, 태양광발전 등 시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정부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등)과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해 시설의 에너지비용 경감은 물론 지역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선정된 19개 마을의 주택 등 842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마을은 사업 공모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통해 사업이 선정돼 사업추진에 따른 호응이 높고 일부 진행된 사업결

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의 경우 공동체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갈등 해소와 함께 지역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2019년까지 총 8개 사업에 161억원이 투입돼 풍력(132kW), 태양광발전(3824kW), 태양열(48㎡), 에너지저장장치(1MWh)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근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용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농지잡식, 산림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유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019 JEJU GRANFONDO

알림

10.19 참가접수 (SAT)

8AM Start
이모태우 해수욕장

자전거를 타고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2019 제주 그란 폰도 (JEJU GRANFONDO)'가 오는 10월 19일(토) 오전 8시에 제주 이모태우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제주국제사이클링페스티벌이 새롭게 개최되어 진행되는 본 행사는 이모태우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대정읍을 거쳐 광지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총 100km의 그란폰도 코스와 이모태우해수욕장과 광지해수욕장을 왕복하는 약 30km의 투어 코스를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 어린이와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키즈밸런스바이크 대회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참가종목 구분	코스 길이	참가 대상	참가 비용
그란 폰도	100km	20세 이상 남·여	4만원
자전거 투어	30km	14세 이상 남·여	1만원 (참가비용)
키즈바이크 챔피언십	500m	3-6세 남·여	1만원 (참가비용)

▶ 참가 접수 및 문의처
· 더바이크 홈페이지 (www.thebike.co.kr)를 통해 참가 신청
· 더바이크 ☎ 032-322-3379, 제주관광공사 064-740-60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한리일보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한라산 구상나무 종 복원 시험식재

세계유산본부, 오늘 사제비동산일대 묘목 심기

한라산 구상나무 종 복원 연구를 위한 시험식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연구의 일환으로 자생지내 종 복원 연구를 위한 어린나무 시험식재를 4일 어리목 등산로 사제비동산 일대에서 진행한다.

식재장소는 지난 2012년 산불이 발생해 구상나무 등 수목을 비롯한

약 2ha의 식생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현재는 대부분 제주조릿대와 역세가 자리잡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해당지역의 어린나무 식재를 통해 구상나무의 종 복원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의 식생복원효과도 검증할 계획이다.

식재되는 어린나무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자생

지에서 수집한 종자를 한라산연구부 양묘시험포지에서 지난 8년간 자체적으로 키운 어린묘목 1000본이다. 한라산연구부는 그동안 시험식재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보호지역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생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친환경 맞춤형 식재용기를 제작해왔다.

또 구상나무의 생존율을 높이면서 식재에 따른 대상지의 환경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재기법 등을 준비해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쳤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다문화

를 피우는 꽃,
존중이 밑거름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들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김용규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